

2024 Vol.20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C O N T E N T 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4 Vol.20

발행일 | 2024. 08. 31.

발행인 |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생물관 106호

TEL. 051)510-7905 FAX. 051)510-1118

E-mail. uispc@pusan.ac.kr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혁신, 그리고 소규모 대학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_ 권경만

성과사례

- 08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강화하는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학과장 교수_ 조윤아
- 12 학생 주도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한마멘토 프로그램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 대학생활문화원장_ 박정아
- 16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길, 서비스러닝(S-L) 프로그램
남부대학교 교무처 직원_ 서지원
- 20 전공교육과정 자체분석·진단제도 운영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전공역량진단센터 과장_ 김호엽
- 24 자기주도학습으로 전공능력 심화와 Self-Brand 개발을 잡아낸다
동서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센터 연구원_ 김은정
- 28 재학생-졸업생-외부전문가가 함께 애니메이션 Remake 프로젝트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교수_ 강승훈
- 32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
'제1회 수도권역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톤 대회' 우수상 수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_ 문정은
- 34 지역기반 교양 교과목 '앤 하트' 확대 운영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연구원_ 김수빈
- 38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출발 - [ELPIS 인성캠프]
인천가톨릭대학교 ELPIS교양대학 연구교수_ 심교린
- 42 조선대학교 '제3회 CSU 교양교육 포럼' 성료
조선대학교 교무처 창의교육팀 직원_ 김가원
- 44 미래융합대학 전공 탐색을 위한 "차오름 전공박람회"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사원_ 김혜정
- 48 한성대학교 교양필수과목 <한성 이마기난스> 성과 공유회, 메타버스에서 성료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조교수_ 주현식



학생사례

- 50 **체험형 교육과정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2학년_ 남태우
- 54 **대학혁신지원사업 RUS 참여 후기**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_ 김찬우
- 56 **Next Rise 2024: 열정과 혁신의 현장에서 무역인의 꿈을 키우다**
건국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학과 글로벌 서포터즈_ 하유진
- 60 **학습싸클이 열어가는 가능성의 문**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_ 김효은
- 62 **창의력 쑥~! 스키타고 쑥~! ‘쑥쑥 캠프’에서 배운 창의적 문제해결의 힘**
대구한의대학교 K-뷰티비즈니스전공 학생_ 임현정
- 66 **새로운 시각: 혁신드림멘토단과 함께한 여정**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_ 장서운
- 68 **우리의 대학 생활에 파고든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 (서포터즈 WINGS 6기) 학생_ 임진영
- 70 **융합전공 이수경험을 말하다: 내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 뿌리기**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정보과학 융합전공) 재학생_ 장유아
- 74 **WON+페스티벌에서 만난 혁신과 소통: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원광대학교 학생_ 고지성
- 78 **아이디어를 현실로: BYOI가 만들어준 혁신의 물결**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광고PR브랜드 전공 재학생_ 신해수
- 82 **GEM 프로젝트: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_ 전은지

행사소식

- 86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사전교육 및 발대식” 개최**
강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원_ 최병민
- 90 **호원대학교 인권의식 증진 홍보캠페인**
호원대학교 인권센터 계약직(팀원)_ 김민지

기고문

Contributions

혁신, 그리고 소규모 대학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필자는 생성형 AI의 하나인 chatGPT에게 한국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물어본 결과 7개의 분야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답을 받았다. 기술 및 정보통신(ICT), 산업 및 제조업, 교육, 스타트업 및 벤처, 의료 및 바이오, 공공 및 행정, 에너지 및 환경 분야가 그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니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었다.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까지 다단한 과정을 보는 듯한 복합적이고 복잡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I N N O V A T I O N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innovation)은 사전적으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혁신과 유사한 용어로는 ‘변화(change)’, ‘개혁(reform)’을 들 수 있다. 이들 간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 본다면 혁신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변화는 기존의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혁신은 강한 목적성과 의도성을 지니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개혁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주로 제도나 구조, 법령의 개조를 통한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혁신은 구성원의 태도, 인식, 행동의 패턴 변화를 통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교육분야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교과서 및 스마트 클래스,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딩 및 소프트웨어 교육, 학교 혁신 프로그램 등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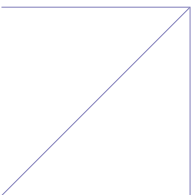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혁신’이라는 용어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1주기(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와 2주기(2022~2024년) 성과평가의 주안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모 언론사에서 주관한 대학혁신포럼(2024.5)에서 다뤄진 주제를 통해 한국의 주된 혁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필자가 속한 한국성서대학교와 같은 소규모 (종교계) 사립대학이 주로 수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대학을 고려하는 것은 2025년도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첫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1주기 성과 및 2주기 성과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은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주기(2019~2021년)에 약 1조9000천원이 투입되었고 143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당시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로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 개발, 학생의 적성과 희망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구축, 교직원 역량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과 원격수업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유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백서에서는 주제별로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수법 혁신, AI(딥러닝)/메타버스(AR/VR), 지역연계·산학협력, 창의융합형 교육,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교육(에듀테크)’의 5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다음 살펴볼 것은 2주기(2022~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과평가(2024.7)에서 제시된 (1) 수도권 대학 대상 가산점 내용과 (2) 평가 지표 및 내용이다. (1)과 관련해서 수도권대의 경우 2025학년도 모집단계시 유형1(무전공제, 자유전공학부)과 유형2(계열 또는 단과대 전공자율선택)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2)에 대해서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인재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성과 및 전략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사구조 유연화, 융합교육 운영, 소양교육 활성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전과·복수전공의 전공 선택권 확대, Joint Appointment제 교수 임용, Academic Advisor의 교육 지원 등이 그것이다.

둘째,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학혁신포럼’에서 제시한 한국 대학의 혁신 방향에 대한 주요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포럼은 대학의 혁신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학·정부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대담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주요 인사 3명의 강연내용만 보기로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전환 시대에 대학의 허브 역할을 통해 지역·산업과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규제 혁신에 교육부 역할을 집중시키고 정부가 벤처 캐피탈처럼 대학 혁신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대학 구조 개혁에서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히 현 고등교육체제의 문제점으로 재정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립대학을 꼽으면서 사립대학 내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단과대학 설립을 제안하였다. 한편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이 타성에 갇혀 있어선 안되고 비전통적(Unconventional)으로 변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백설공주를 피오나 공주로 만든 제프리 카우잠버그의 성공사례를 언급했다. 이상의 강연은 우리에게 대학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대학의 혁신 실태에 대해서는 최근 있었던 소규모 종교계 6개 대학 포럼에서 다뤄진 주제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2024년 2월에 인천가톨릭대 주관 ‘학생중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성과 공유 포럼’에서는 인천가톨릭대의 ‘IAM 제도 수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가톨릭꽃동네대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집중실습의 성과와 과제’, 루터대의 ‘사회공헌형 인재 양성을 위한 GL-LU-CAL 진로생태계 구축’, 목포가톨릭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봉사·인턴십’, 예수대의 ‘하이브리드 실습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 한국성서대의 ‘학생중심의 학생-교수 간 공동학술 연구 프로젝트’가 각각 발표되었다. 모두 소규모 종교계 대학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필자가 속한 한국성서대의 발표 주제는 소규모 대학의 장점인 학생-교수 간의 끈끈한 관계를 공동체로 묶어 논문과 저서 등의 결과물로 연결시킨 대표적인 혁신사업이다.





I N N O V A T I O N

혁신의 최종 목적은 대학의 성공일 것이다. 성공을 사전적 의미로 유추해 보면, 대학의 성공은 대학의 설립목적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설립목적은 교육에 있고 그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즉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은 대학 스스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는 것에 있고 그러한 내용과 방법을 공유·혁신하여 상생·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에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말이 있다. 아주 작은 개미라도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하는 대학에서 나타나는 구성원과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소규모 대학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제나 유연한 학사제도, 혹은 그 어떤 고효과 프로그램이라도 모두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와 행정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소규모 대학이야말로 학생과 교수 간의 끈끈한 그것을 기초로 삼아 교육하는 곳이다. 이제는 소규모 대학에게 ‘혁신’을 묻고 배워야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강화하는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조윤아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학과장
교수

“자유전공학과 소속감,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이 발언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아직도 그 표정과 목소리까지 생생하다.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는 2학년이 되면 학생이 선택한 전공 학과로 진학하기에 자칫 신입생으로서 한창 활기찬 대학생활을 펼칠 시기에 소속감 없이 방황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학생의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전문영역이든 순수학문이든 전공에 기초하여 미래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학생의 적성 및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러 전공의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는 학생에게 폭넓은 전공 탐색 및 다채로운 진로 설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22년에 자유전공학과를 신설하였다.



▲ 동급생 MT 단체 사진



▲ 자유전공학과 개강총회

자유전공학과 신입생이 입학한 첫해에는 MT 외에 전공 탐색 세미나, 진로 특강 등의 행사 참여율이 저조하여 걱정이 많았으나, 바로 이듬해인 2023년에는 12월 종강총회까지 참석 학생이 많아 학생회 임원진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MT를 2회로 늘려 1학기는 선후배가 함께하고, 2학기는 1학년 동급생만 가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자유전공학과와 선배는 이미 각자 다른 전공 학과 소속의 2학년이 되었음에도 2월 신입생 OT와 1학기 초 MT에 십수 명이 참석하는 끈끈함을 보였다. 올해 2024년 1학기 초 개강총회와 MT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참여하였고 각종 행사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시스템

2023학년도부터 '전공 탐색 세미나-선배와의 만남'을 개최하고, 각 학과로 진학한 2학년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 효과는 자유전공학과에 한정되지 않고 동아리나 총학생회 등 여타 가톨릭대학교 학생자치 활동에도 나타났다. 선배가 소속된 모임에 자연스럽게 자유전공학과 후배들이 참석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본교는 신입생-재학생 멘토링을 확대하고자 2024년 2학기부터 재학생 1명의 멘토가 신입생 5~6명의 멘티를 만날 수 있도록 멘토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학과 정원 확대, 계열 모집 인원 확대 등 전공·학과 구분없는 모집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100인의 멘토단을 확보하여 신입생의 전공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탄탄한 학생자치 활동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교수와의 만남이나 학과 행사 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자유전공학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수업 외 학과 관련 활동은 학생자치기구에서 주도하고 있기에 자유전공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전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유전공학과 학생회는 현재 과대표와 과부대표로 이루어진 회장단 외에 기획정책국, 재정사무국, 대외홍보국, 복지문화국 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명의 학생이 자유전공학과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회의 활동은 자유전공학과 정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모임 운영, 학생 친화 활동, 소규모 현장 활동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홍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학생자치 활동의 대부분은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되며, 학과 차원의 정기 활동은 교수와 학생 대표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전공학과 교수진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1년 동안 학생회 임원진으로 활동한 학생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하고 학적에 기록함으로써 학생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I-DESIGN〉과 〈나를찾는학기 Festival〉 시너지 효과

가톨릭대학교는 2024년부터 '신입생 DESIGNer 학년제'를 도입하여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과 더불어 전공 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융합한 교과목인 1학기 〈I-DESIGN〉, 2학기 〈Career DESIGN〉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든 신입생이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과로 다양한 전공에 대해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DESIGN Advisor'로 기초소양 교육과 전공 탐색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며 소속 학과 지도교수와 크로스 체크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다. 일주일 동안 전공·학과·부서별 부스에서 교수들이 직접 상담하는 〈나를찾는학기 Festival〉 행사는 〈I-DESIGN〉 교과목 개설로 시너지 효과를 내었고 학생 개별 맞춤형 전공 탐색을 지원할 수 있었다.

자유전공학과 정원 확대 및 전공선택권 강화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는 입학 후 1년 동안 여러 학과의 전공기초 교과목과 공통 교양교과목 수강 및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전공 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2학년 진급 전까지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3개의 계열 즉, 인문·사회 계열과 공학 계열, 그리고 자연·생활 계열 중 하나로 지원하여 입학하였으며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계열에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2025 년도는 정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으로 계열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에도 계열 구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입학할 때나 전공을 선택할 때에 어떤 구분도 없도록 하여 그야말로 자유롭게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톨릭대학교는 자유전공학과를 자유전공학부로 승격시키고 앞으로도 '신입생 DESIGNer 학년제',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Advisor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학생 주도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한마멘토 프로그램



박정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 대학생활문화원장



▲ 한마멘토 양성교육과정 모습

경남대학교는 교양 있는 전문인, 지역발전의 창도자, 주체성 있는 세계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문지혜, 문제해결, 창의융합, 미래혁신, 소통협업, 글로벌시민이라는 6대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MZ세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니즈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에 비해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높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며, 일상에서의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면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자기와 타인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등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 변화를 요하는 영역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한마멘토 활동가 발대식

경남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센터는 MZ세대의 특성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불편감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제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주도의 한마멘토 프로그램은 또래 친구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마멘토 프로그램은 또래 멘토를 양성하여 진로 탐색 및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증진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센터로 연계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래상담과 봉사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마멘토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중 한마멘토 활동가를 선발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마멘토 양성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12시간 동안 또래상담자의 역할, 공감과 경청, 의사소통방법, 또래상담기법 등을 학습하고, 교육 수료 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솔리언또래상담자’ 수료증을 수여한다. 한마멘토 활동가들은 한 학기 동안 학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고민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는 1:1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데, 또래상담자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과 또래상담기법이 어우러진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홍보부스 활동을 통해 즐겁게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상담센터와 학생들 간의 매개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한마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들은 “의지할 사람이 생겨 학교 오는 게 좋았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멘토가 고마웠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한마멘토 활동가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을 들어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학생이 되고자 한마멘토 멘토로 활동했는데, 오히려 멘티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 “학교에 관한 정보와 진로에 대한 것을 함께 탐색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한마멘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한마멘토 양성 교육과정을 경남대학교 공통 비교과 과정으로 등록하여 더 많은 재학생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한마멘토 프로그램이 단순히 스펙 쌓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있게 공감하는 등의 소통협업 역량을 함양하고, 자아존중과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세계 속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융합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학생 주도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한마멘토 프로그램



▲ 한마멘토 홍보부스 활동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길, 서비스러닝(S-L) 프로그램



서지원

남부대학교
교무처 직원

추진배경

- ▶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된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그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 시민적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함
- ▶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뿐만 아니라 학습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 사회공동체 속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글로벌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을 증진하기 위함



▲ 수기 공모전 포스터

운영내용

1.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024학년도 2월 초 (운영: 학기제)
2. 교과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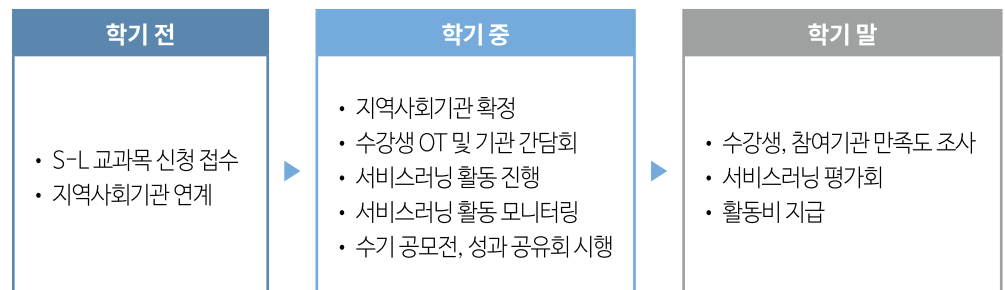
1) 운영유형

교육활동형	교과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하여 대학생들이 교수활동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는 유형
재능봉사형	교과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봉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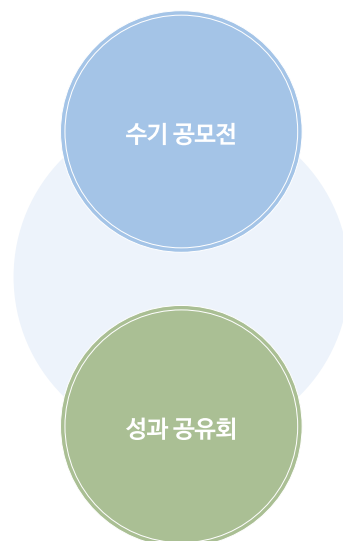
문제해결형

교과를 통해 배운 문제해결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형

2) 운영절차



3) 운영 중 활동



▶ 서비스러닝 활동 중 유익했던 경험, 참여를 통한 나의 변화 (태도, 성격, 가치관 등), 진로 설계 및 목표변화, 자신의 성장 계획, 지역사회 참여의식 및 사회적 책임감, 사회 발전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작성 후 제출. 우수작 3건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 수여

▶ 서비스러닝 교과목에서 배운 바를 바탕으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며, 서비스러닝 활동에 대한 내용, 활동 중 보고 배운 점에 대해 발표 후 우수팀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



▲ 서비스러닝 성과 공유회



▲ 수기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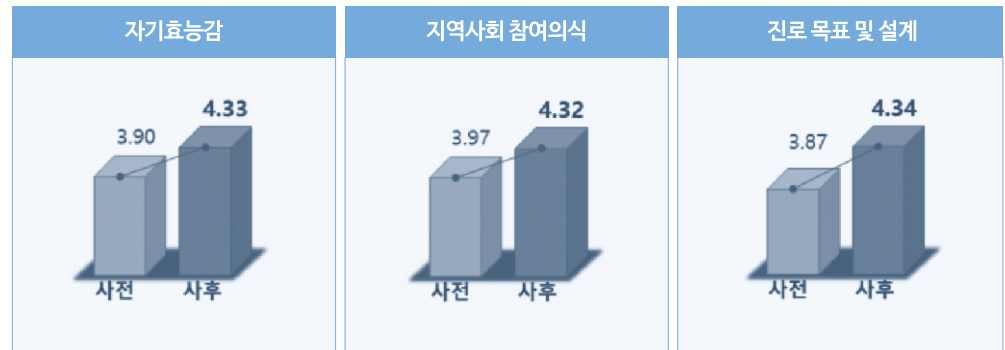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길, 서비스러닝(S-L) 프로그램

■ 운영성과

- ▶ 2024학년도 1학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 학생 61명 중 51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점수는 4.49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

- 검사도구: 구글 폼 (서비스러닝 2024학년도 사전/사후 설문조사)
- 문항구성: 5점 척도, 총 20문항 / 영역: 자기효능감, 지역사회 참여의식, 진로 목표 및 설계
- 참여대상: 서비스러닝 참여 학생 61명
- 사전/사후조사 분석결과



- ▶ 서비스러닝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분석 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에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자기 효능감 3.90 → 4.33(▲ 0.43), 지역사회 참여의식 3.97 → 4.32(▲ 0.35), 진로 목표 및 설계 3.87 → 4.34(▲ 0.47) 항목의 점수가 향상됨

참여 학생들의 주요 성과(소감)

-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마음과 봉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단지 봉사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 제과제빵 과목 지역사회기관에서의
코치형 푸드수업



▲ 남성커트 과목 지역사회기관에서의
헤어봉사 활동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 놀이 및
학습지도 활동

분석·진단 결과 및 컨설팅 단계		추진부서	협조 부서
2023.7.28. 2023.8.중 2023.10.~2024.1. 2023.12.	자체 진단 내용 1차 점검 자체 진단 내용 2차 점검 및 컨설팅 대상 학과(부) 확정 컨설팅 실시(전공역량센터 지정 및 희망 학과(부)) 자체 진단보고서 전체 게시 및 성과 확산	전공역량 진단센터	교내 전문가 외부 전문가

보고서 집필, 게재 편의성, 성과확산 효과성을 위해 'DU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탑재하여 학과별 제출 보고서를 각 챗터별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전년도 계획대비 실행결과와 차년도 계획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발을 최근 완료하였다.

DU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성별, 정원내외 신입생, 재학생, 중도탈락자, 편입생 상세 현황, 인재인증 취득현황, 전과유입, 전과유출은 물론 부복수전공 유입, 부복수전공 유출, 비교과 활동,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대학전체와 학과간 비교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학생 현황

가. 성별 학생 현황

구분	학년도	성별	남	여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신입생	2021	남	55	16	71	12	6	89
	2022	남	57	14	71	7	2	80
	2023	남	57	16	73	3	3	79
	부합률	남	169	46	215	22	11	248
	2021	남	254	91	345	18	20	385
재학생	2022	남	224	91	315	18	20	347
	2023	남	232	108	340	19	21	347
	2024	남	240	110	350	19	21	350
	부합률	남	53	12	65	3	1	69
	2021	남	54	13	67	6	2	77
중도탈락자	2022	남	31	13	44	6	1	66
	2023	남	54	8	62	6	1	66
	2024	남	158	33	191	4	2	212
	2021	남	4	1	5	1	1	6
	2022	남	3	1	4	1	1	3
편입생	2023	남	7	-	7	-	-	12
	2024	남	7	-	7	-	-	12
	2025	남	7	-	7	-	-	12
	2026	남	7	-	7	-	-	12
	2027	남	7	-	7	-	-	12
총합계	부합률	남	1074	329	1403	25	15	1585

나. 정원내·외별 학생 현황

구분	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신입생	2021	71	16	87	12	6	89
	2022	71	14	85	7	2	80
	2023	73	16	89	3	3	79
	부합률	215	1	216	-	-	32
	2021	245	1	246	1	1	27
재학생	2022	245	1	246	1	1	27
	2023	245	1	246	1	1	27
	2024	245	1	246	1	1	27
	부합률	300	4	304	1	2	31
	2021	300	4	304	1	2	31
중도탈락자	2022	45	2	47	1	1	69
	2023	45	2	47	1	1	69
	2024	45	2	47	1	1	69
	2025	45	2	47	1	1	69
	2026	45	2	47	1	1	69
편입생	2021	191	1	192	2	2	212
	2022	191	1	192	2	2	212
	2023	191	1	192	2	2	212
	2024	191	1	192	2	2	212
	2025	191	1	192	2	2	212
총합계	부합률	1403	26	1429	3	5	1585

다. 최근 3년간 HEART 인재인증 학생수

대학 전체	우리 학과(부)
인증시기	최우수 우수 인증 총합계
2020-학기	55 45 88 188
2021-학기	320 327 747 1388
2022-학기	68 43 111 222
2023-학기	619 342 961 1600
총합계	1406 1067 2286 4695
대학 전체	13 23 37 63

5. 중도탈락자 현황

가. 최근 3년(2020-2022) 학년도별 모집시기별 중도탈락자수

구분	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신입생	2021	71	16	87	12	6	89
	2022	71	14	85	7	2	80
	2023	73	16	89	3	3	79
	부합률	215	1	216	-	-	32
	2021	245	1	246	1	1	27
재학생	2022	245	1	246	1	1	27
	2023	245	1	246	1	1	27
	2024	245	1	246	1	1	27
	부합률	300	4	304	1	2	31
	2021	300	4	304	1	2	31
중도탈락자	2022	45	2	47	1	1	69
	2023	45	2	47	1	1	69
	2024	45	2	47	1	1	69
	2025	45	2	47	1	1	69
	2026	45	2	47	1	1	69
편입생	2021	191	1	192	2	2	212
	2022	191	1	192	2	2	212
	2023	191	1	192	2	2	212
	2024	191	1	192	2	2	212
	2025	191	1	192	2	2	212
총합계	부합률	1403	26	1429	3	5	1585

나. 최근 3년(2020-2022) 수료학기별 남·여 중도탈락자수



※ 여학생(남) 비율(%)

6. 재학생의 진과 현황

가. 진과 유출자 현황

구분	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신입생	2021	71	16	87	12	6	89
	2022	71	14	85	7	2	80
	2023	73	16	89	3	3	79
	부합률	215	1	216	-	-	32
	2021	245	1	246	1	1	27
재학생	2022	245	1	246	1	1	27
	2023	245	1	246	1	1	27
	2024	245	1	246	1	1	27
	부합률	300	4	304	1	2	31
	2021	300	4	304	1	2	31
중도탈락자	2022	45	2	47	1	1	69
	2023	45	2	47	1	1	69
	2024	45	2	47	1	1	69
	2025	45	2	47	1	1	69
	2026	45	2	47	1	1	69
편입생	2021	191	1	192	2	2	212
	2022	191	1	192	2	2	212
	2023	191	1	192	2	2	212
	2024	191	1	192	2	2	212
	2025	191	1	192	2	2	212
총합계	부합률	1403	26	1429	3	5	1585

※ 우리 학과(부)에서 타 학과(부)로 전과 후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수(2023.4.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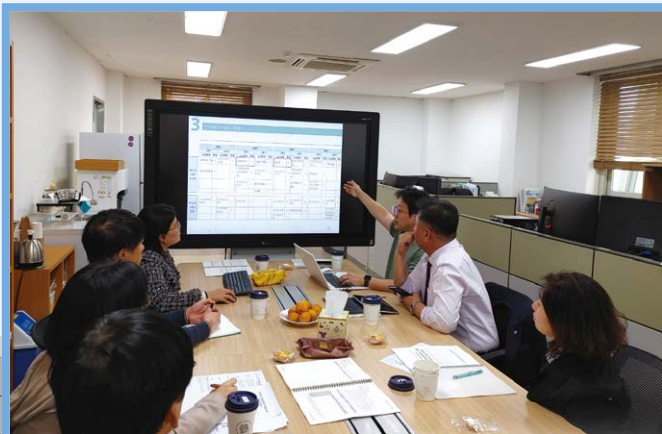
나. 전과 유입자 현황

구분	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신입생	2021	71	16	87	12	6	89
	2022	71	14	85	7	2	80
	2023	73	16	89	3	3	79
	부합률	215	1	216	-	-	32
	2021	245	1	246	1	1	27
재학생	2022	245	1	246	1	1	27
	2023	245	1	246	1	1	27
	2024	245	1	246	1	1	27
	부합률	300	4	304	1	2	31
	2021	300	4	304	1	2	31
중도탈락자	2022	45	2	47	1	1	69
	2023	45	2	47	1	1	69
	2024	45	2	47	1	1	69
	2025	45	2	47	1	1	69
	2026	45	2	47	1	1	69
편입생	2021	191	1	192	2	2	212
	2022	191	1	192	2	2	212
	2023	191	1	192	2	2	212
	2024	191	1	192	2	2	212
	2025	191	1	192	2	2	212
총합계	부합률	1403	26	1429	3	5	1585

※ 타 학과(부)에서 우리 학과(부)로 전과 후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수(2023.4.1. 기준)

학과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전공역량진단센터에서 분석하여 대학 게시판을 통해 피드백하였고 3개 신설학과와 2개 희망학과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서면 1회, 대면/온라인 1회로 진행하였다.

학과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학과의 전공역량과 진로 로드맵에 따른 전공교육과정의 설계, 운영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보건의료정보학과 컨설팅

전공교육과정 자체분석· 진단제도 운영



▶ 군사학과 컨설팅



▲ 산림자원학과 컨설팅



▲ 아동가정복지학과 컨설팅

학 과 별 컨 설 팅 진 행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전공역량진단센터는 학생과 학과 관련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신설학과의 전공교육과정 자체분석·진단과 컨설팅을 2024학년도에도 실시하는 한편, DU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제출 학과의 계획 대비 실행결과와 차년도 계획을 입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외부 대학평가에 쫓겨 진행하던 학과 역량평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우리 대학 고유의 특성화, 대학 본연의 교육역할에 집중하면서, 교육 수요자의 활동과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정착·운영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자기주도학습으로 전공능력 심화와 Self-Brand 개발을 잡아낸다



김은정

동서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추진배경 및 목적

동서대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설계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자기주도경험학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교과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공능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과제를 혼자서 혹은 팀을 만들어 수행하면서 전공 직무와 관련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도 배양하고, 성공적인 결과물로 Self-Brand도 만들 수 있는 수업이다.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은 학생이 설계한 다양한 경험을 교과목으로 승인받고 수행한 후 학점을 인정받는 형태로, 학습 과제와 활동 내용에 따라 일반선택이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영내용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은 학습 시간에 따라 과목당 1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신청은 팀 및 개인으로 가능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내부 심의를 통해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학습 범위는 공모전 참가 및 준비, 연구개발을 통한 논문 특허 시제품 제작, 창작 활동을 통한 영상물·저서·작품 제작 등이 있으며, 다양한 학습활동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기주도경험학습]의 관리는 동서대 교육혁신원 산하의 교육혁신센터가 맡고 있다. 수강생 모집 및 계획서 심사, 학습 활동 모니터링, 결과물 발표 심사, 학점 취합 등 교과목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성적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담당 교수가 부여한 점수와 3인의 평가위원이 심사한 학생들의 결과물 발표 점수를 취합하여 학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설계 교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성적 평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 학점 쏠림 등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다른 대학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2024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 다양화를 위하여 정규학기(1~15주차) 외에도 학기 전반 집중이수(1~8주차), 학기 후반 집중이수(9~15주차)로 기간을 세분화해서 학생을 모집, 운영 중이다.

【표 1】 과목별 취득학점 및 학습시간

교과목명	학점	학습시간	비고
자기주도경험학습 1, 2 [Self-Directed Experiential Learning 1, 2]	각 1학점	30시간 이상	-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 인정 - 자기주도경험학습 1~4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선이수 후 5~6 교과목 신청 가능
자기주도경험학습 3, 4 [Self-Directed Experiential Learning 3, 4]	각 3학점	90시간 이상	
자기주도경험학습 5 [Self-Directed Experiential Learning 5]	6학점	180시간 이상	
자기주도경험학습 6 [Self-Directed Experiential Learning 6]	15학점	450시간 이상	

그림 1. 교과목 운영 프로세스



■ 운영성과

본 교과목은 2019~2학기부터 2024~1학기 현재까지 총 230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224명이 이수하였고, 189명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았다. 그간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은 6명뿐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 학기 신청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목 운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COVID-19의 영향으로 2022학년도 전까지는 다소 신청이 부족했지만, 대면 활동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는 예년 이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신청 학생이 증가한 데에는 대면 활동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참여한 학생들의 긍정적 입소문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MZ 세대들의 다양한 개인 취향이 자기만의 학습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자기주도경험학습]과 통하는 점이 있어서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이수학점별 학생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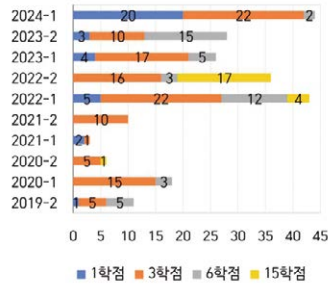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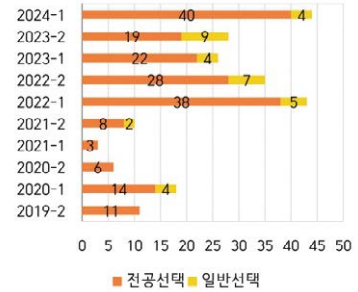


그림 3. 이수구분별 학생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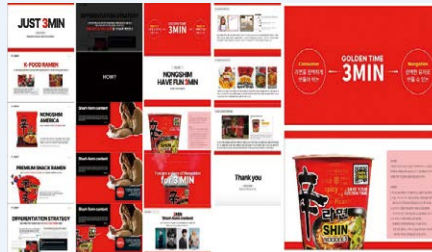
학생 성과물 예시



2024-1학기에는 교과목 개설 이후 가장 많은 학생이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참여한 학생들은 학습 결과물을 통해 특허출원 진행, 학회 발표 및 논문 투고, 각종 공모전 참가 및 입상, 제품·책자 제작 및 상품화, 게임·영상물 제작 및 전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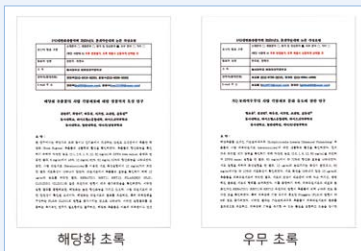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 LA 농심 지사 아이디어발표 진행



▲ 건축물 3D 모델링



▲ 신소재 개발 및 특허 진행



▲ 영어 동화책 제작



▲ 외교부 주최 공모전 대상 수상



▲ 디지털융합교육원 주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교과목 소개 및 성과 안내



▲ 우수 사례 발표



▲ 우수 사례집 제작



▲ 포스터

성과확산 워크숍

교육혁신센터에서는 교과목 성과 관리 및 안내를 위해 매 학기 수강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경험학습 성과 확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직전 학기 우수 학생들의 성과 발표를 진행하여 새롭게 자기주도경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목 운영 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뿐만 아니라 교과목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Q&A 시간을 통해 소통하며 교과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매 학기에 직전 학기 성과 사례집을 제작하여 아카이브화하고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학점으로 만들려는 경험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다.

[자기주도경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는 만 5년이 된 본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화려한 비상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 안내



자기주도경험학습 성과확산 워크숍

향후 계획

현재까지의 운영내용을 기반으로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내 타 프로그램과 [자기주도경험학습] 교과목 수강 학생들을 연계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MZ 세대들만의 개성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재학생-졸업생-외부전문가가 함께 애니메이션 Remake 프로젝트



강승훈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동서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강승훈 교수

INTERVIEW

#Remake Project - Blaze Knight 운영

재학생과 졸업생, 업계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영상애니메이션 졸업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Remake를 해보는 프로젝트.

“

현장의 경험이 학생들의 작품제작에 빠르게 도입돼야 하며,
실험적인 작품제작 지원을 통해 전문가와 학생의 네트워크 및
작품제작 중심의 경험 전수가 필요합니다.

”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차세대 기술 기반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수행한
동서대 영상애니메이션 학과 강승훈 교수를 서면으로 만났다.

언리얼엔진, 이펙트 등 콘텐츠제작 최신 제작기술 활용
재학생-졸업생-외부전문가 함께 Remake 프로젝트 수행
다학제간 연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

Q.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 A. 컴퓨터를 활용한 콘텐츠제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콘텐츠제작 현장의 최신 제작기술이 대학교육과정에 적용되기까지 괴리가 커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 현장의 경험이 학생들의 작품제작에 빠르게 도입되어야 하며, 실험적인 작품제작 지원을 통해 전문가와 학생의 네트워크 및 작품제작 중심의 경험 전수가 필요하다.



▲ 애니메이션 연출에 관한 특강(전문가: 유나라 감독)



▲ 모션캡처를 위한 연출법 특강(전문가: 김흥래 감독)

Q.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됐나?

A. 졸업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2015년 졸업작품 <Blaze Knight>))하여 최신제작 기술을 활용, 재학생-졸업생-외부전문가 그룹이 Remake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작품제작 활동을 수행했다.

기존 작품 분석 및 리메이크 기획 등 스토리보드 제작, 언리얼엔진 스터디, 컨셉디자인 및 모델링, 리깅(3D캐릭터 뼈대 작업), 모션캡처, Niagara FX 기반 Asset을 활용한 이펙트, 언리얼엔진 작업 등을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작품제작에 참여하여 약 4분 30초 분량 Previs 영상이 제작되었다.

Q.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꼽자면?

A.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현장 전문가 그룹의 참여다.

▲ 김경환 아티스트가 학생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문가 작업 워크플로어를 연계한 시제품 제작을 도왔고 ▲ 핑고 엔터테인먼트 이정은 실장이 '모델링 워크플로우' 특강 ▲ 국내 최고 모션디렉터 김홍래 감독이 '모션 캡처를 위한 연출기법' 워크숍 ▲ 캠퍼파이어애니웍스 유나라 감독이 '애니메이션 연출'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기술을 전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며 최신 작가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작품제작 경험은 우리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홍다민 씨(게임학과3)는 “‘배운다’에서 벗어나 ‘참여한다’라는 생생함을 느꼈다. 학교 강의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나에게 선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Q. 향후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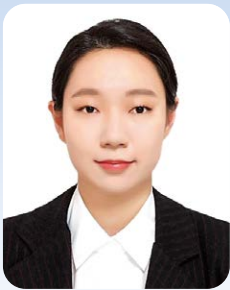
A. 최신 기술의 활용 능력은 제작능력 향상 및 취업 등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대학활성화 사업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교육과 제작, 활용 등 3개의 트랙으로 나눠 단계별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현장과의 끈끈한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기술을 더욱 민감하고 빠르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2차 창작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을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 ‘제1회 수도권역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톤 대회’ 우수상 수상



문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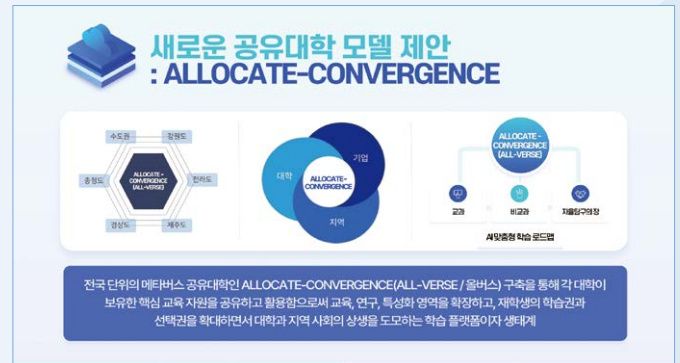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에서 개최한 ‘제1회 수도권역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우리 대학 ‘올버스’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예선(대학자체 진행), 본선을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도권역 대학혁신지원사업 회원교 소속 학생들이 참가했다.

5월 2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결선에는 총 10개 팀이 진출했다. 우리 대학 ‘올버스’팀은 전국 단위의 메타버스 공유대학 ‘ALLOCATE-CONVERGENCE, ALL-VERSE’를 제안했다. ALL-VERSE란 각 대학이 보유한 핵심 교육자원을 가상공간을 통해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재학생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학습 플랫폼이다. 올버스는 대학의 상생을 위한 혁신적인 자원 공유체제의 필요성과 기존 공유대학의 한계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공유대학 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올버스는 “공모전 첫 도전임에도 훌륭하고 성실한 팀원들과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교육-공학적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자료조사부터 피피티 제작, 아이디어 제공까지 실력이 출중했던 팀원들 덕분에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여러 교수님과 전문가분들, 대학혁신단, 피칭 트레이닝 대표님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대학혁신단은 내부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고 해당 팀에게는 피칭 전문가의 코칭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결선 발표를 지원하였다. 대학혁신단은 학생들의 사회이슈 분석 능력과 실행 가능한 미래공유대학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갈 예정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올버스'팀 발표 자료



▲ 숙명여자대학교 '올버스'팀 결선 수상 사진

학생 소감 - 올버스 이수지 팀장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변화를 상상하고 그것을 구체화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진행 중인 공유대학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대학이 어떻게 혁신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해볼 수 있었던, 학생으로서도, 교육학 전공생으로서도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 교육부 자료나 교육기관의 보고서를 읽고, 현재 교육계의 이슈나 동향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 후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전공 수업만으로 얻을 수 없었던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기반 교양 교과목 ‘앤 하트’ 확대 운영



김수빈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연구원

추진배경

- ▶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성공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실행과제의 일환으로 GPS 교양혁신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 ▶ 학생성공 GPS 교양혁신수업모형은 서비스러닝형을 포함한 브릿지형, 자기주도 문제해결형, 소그룹 협동학습형, 플립드 러닝형, 지역사회연계 체험형, 프로젝트형 등 7개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그 중 서비스러닝형 모형이 적용된 ‘디자인 앤 하트’, ‘K-컬처 앤 하트’ 등 ‘앤 하트’ 계열 교과목을 교양차원의 이론적 지식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학습이 통합되는 지역기반 교양 교과목으로 개선하고 확대·운영하였다.

운영내용

단계

내용

협업

준비 및 계획 단계

서비스러닝
운영 준비

- ▶ 서비스러닝 연계 교과목 선정
: 디자인 앤 하트 / K-컬처 앤 하트
- ▶ 교과목의 성격과 연계된 서비스러닝 활동 주제 선정
: 미디어 디자인 기술 학습을 통한 지역 아동 대상 디자인 및 주얼리 제작 봉사
: K-컬처 문화 학습을 통한 교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문화 알리기 봉사
- ▶ 서비스러닝 활동 협력기관 및 부처 협조사향 결정
: 학생지원팀 / 신라사회봉사센터 / 교무처 / K-컬처 학과

2학점 인정
(교무처)
봉사시간
(8시간 이하) 인정
(신라사회봉사센터)

단계	내용	협업
협력기관 확보	▶ 서비스러닝 활동 기관 파악 및 섭외 : 학생지원팀 → 신라사회봉사센터 → 사상구자원봉사센터 : 국제교류처, K-컬처 학과(학과장, 외국인 유학생 진로 담당교수) ▶ 서비스러닝 기관 선정 : 지역아동센터 4개(새솔지역아동센터, 덕포영재 지역아동센터, 문일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및 K-컬처학과	교양과정대학 학생지원팀 신라사회봉사센터 사상구자원봉사센터 4개 지역아동센터 K-컬처학과
OT 실시	▶ 수업 1주차: 서비스러닝 활동 안내 : 서비스러닝형 수업에 대한 이해와 목적 설명, 서비스러닝형 수업 활동 안내	교양과정대학 (해당 교과목)
실행 및 관리 단계		
서비스 러닝 활동	▶ 디자인 앤 하트 교과목 학기 중 2시간씩 총 4주 이상 봉사-학습 활동 ▶ K-컬처 앤 하트 학기 중 2시간씩 총 4주 이상 봉사-학습 활동 (유학생 초대 강의, 공통 및 선택 체험학습) ▶ 해당 수업별 서비스러닝형 수업의 활동지도	디자인 앤 하트 교과목 (4개 지역아동센터) K-컬처 앤 하트 (K-컬처학과 유학생)
평가 및 개선 단계		
서비스 러닝 활동 평가	▶ 서비스러닝형 수업 운영 성과 분석 • 최종 활동 보고서, 참여기관의 운영평가 및 피드백 • 서비스러닝형 수업 효과성 분석(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시)	지도교수 이수 학생 교양과정대학 지역아동센터 K-컬처학과



▲ 굿즈 만들기

▼ 드로잉실습



활동사진



▲ 비즈 실습



▲ 캘리그래피



▲ 한국전통놀이



▲ 달고나 뽑기

지역기반 교양 교과목 ‘앤 하트’ 확대 운영

■ 운영 결과

- ▶ 서비스러닝형 지역기반 ‘앤 하트’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업 재설계 환류를 위한 운영 효과 분석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핵심역량 향상도는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평균 0.53점의 매우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 ▶ 향후 지역기반 교양 교과목 ‘앤 하트’ 교과목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하여 교양교육의 품질개선과 지역사회 연계 협업 교육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핵심역량 향상도 : 평균 3.73 → 4.26점으로 0.53 향상

구분	영역	교과목	사전설문조사 평균점수(참여인원)	사후설문조사 평균점수(참여인원)	향상도
선택 교양	나눔	K-컬처 앤 하트	3.61점(14명)	4.18점(18명)	▲ 0.57
		디자인 앤 하트	3.85점(47명)	4.34점(34명)	▲ 0.49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출발 - [ELPIS 인성캠프]



심교린

인천가톨릭대학교
ELPIS교양대학
연구교수

추진배경 및 목적

- ▶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그리스도교 생명문화 창출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생명, 문화, 예술 특화대학으로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단단한 인성에 기반한 융복합적 사고 및 창의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 교육을 추구한다.
-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일상화, 개인화되어 놓쳐왔던 “함께”, “공동체 의식”, “소통”과 관련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신입생 대상으로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전공 및 학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소통과 화합을 이뤄갈 수 있는 역량은 진정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

프로그램 개요

- ▶ 대학 생활 및 학업에 대한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본교 입학식 직후 대학 생활 및 교육의 출발점, ELPIS 인성캠프를 진행하였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에서 학과와 무관하게 소그룹을 편성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①

우리 함께
문제해결



▶ 다양한 학과 및 전공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②

총장님 및
처장님과의 만남



- ▶ 총장님(송태일 안셀모 신부)을 비롯하여 교학처, 기획처, 사무처 신부님들과 함께 본교 입학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 ▶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격려한다.

프로그램 ③

대학 생활 어떻게 하죠?



- ▶ 각 대학 학과장님들을 모시고, 대학 생활 및 학업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생활해야 할지 궁금증을 해소한다.

프로그램 ④

인성특강



-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융합과 소통, 생명문화 창출을 위해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프로그램 ⑤

오리엔티어링



- ▶ 소그룹 팀원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 활동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집단 응집력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출발

[ELPIS 인성캠프]

추진성과

- ▶ 신입생 총 164명 중 151명이 참여(92%의 참석률)하여 신입생들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생명 존중 및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상을 이해하고, 인성을 함양해갈 수 있는 교내 교과 및 비교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 ELPIS 인성캠프 만족도 조사 결과, 총 참여자 151명 중 146명의 응답을 통해 4.43점(5점 만점)의 매우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았으며, 대학 생활 적응 및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고취, 긍정적인 학업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조선대학교 ‘제3회 CSU 교양교육 포럼’ 성료



김가원

조선대학교
교무처 창의교육팀
직원

‘대학 교양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3회 CSU 교양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교무처 창의교육팀은 지난 27일 ‘제3회 CSU 교양교육 포럼’을 라마다프라자 광주 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했다.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공유하고, 교양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조선대학교 교양교육 포럼은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 관심이 있는 타 대학 교직원들도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강희조 창의융합교육단장이 포럼의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사(교무처 황석승 처장) ▲환영사(김춘성 총장) ▲주제발표[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와 대학 교양교육(순천대학교 교양교육원 손승남 원장), 해방 후 한국 교양교육의 두 기원(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홍성기 명예교수), 지구적 다발성 위기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실천공동체 관점을 중심으로(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서덕희 교수), 융복합 시대의 교양교육에 대한 고찰(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 박수진 연구원)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의 대학 교양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석승 교무처장은 “교양교육만의 근본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조선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교양교육의 발전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단체사진



▲ 질의응답

제3회 CSU 교양교육 포럼 ‘대학 교양교육의 현재와 미래’

한편 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에서는 전 학문의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 식견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과목의 운영 ▲ 교양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연구 ▲ 타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및 지역학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 과목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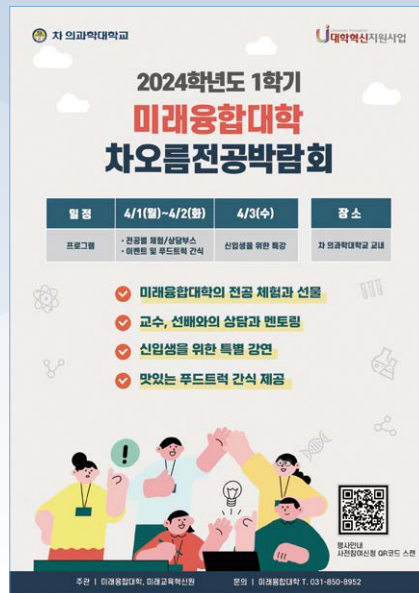
Performance case

미래융합대학 전공 탐색을 위한 “차오름 전공박람회”



김혜정

차의과학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사원



▲ 전공박람회 행사 안내 포스터

추진배경

차의과학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 시 간호, 약학을 제외한 전 계열에 전공자유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3개의 단과대학(건강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통합하고, 생명과학부와 헬스케어융합학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미래융합대학 소속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1학년 동안 교양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을 지원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차오름 전공박람회 (이하 전공박람회)’를 기획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개요

2024학년도 전공박람회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개최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 운영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융합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2일차에는 전공별로 체험 부스를 운영, ▲전공 교수와 함께하는 1:1 진로 상담, ▲선배 멘토와의 대화, ▲마이크로디그리 안내 등 전공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일차에는 ▲대학생 진로 전문가의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경영'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전공박람회에 참여를 독려하고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와 협업하여 행사 참여 학생들에게는 푸드트럭 간식을 제공하였다.



전공박람회 현장 /
1:1상담



추진성과

전공 부스 및 상담에 참여한 학생은 총 574명으로 일 평균 290여명이 참여하였다. 진로 특강에는 미래융합대학생 341명이 참석하여 전체 학생 수의 9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4.3점(5.0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공박람회에 참여한 24학번 문성주 학생은 전공 교수진과의 1:1 상담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제 1전공과 함께 전공하면 좋을 제 2전공을 추천받아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4학번 최민경 학생은 여러 부스를 체험하며 전공을 흥미롭게 탐색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이번 전공박람회는 전공 이해도 고취, 진로 탐색과 더불어 교수님과 선후배, 친구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대학 생활에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공 체험 및 특강





학생회 주관 이벤트
- 푸드트럭 간식

“ 차 오 름 전 공 박 람 회 ”



향후 계획

차의과학대학교 차오름 전공박람회는 무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전공별 부스 체험과 전공 상담을 제공하며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정착하고,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공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전공 커리큘럼과 진로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분야별 전문가 상담 포함). 참여 대상도 재학생에서 지역의 고등학생들로 확대하여, 우리 대학의 자유학부제를 소개하고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한성대학교 교양필수과목 〈한성 이마기난스〉 성과 공유회, 메타버스에서 성료



주현식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조교수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은 교양필수과목 〈한성 이마기난스〉의 성과 공유회 및 시상식을 메타버스 플랫폼 ZEP 상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한성 이마기난스〉 과목을 수강한 844명(전체 신입생의 50% 수준, 2학기에도 개설 예정)의 신입생이 참여했으며, 각 분반 대표 29개 팀이 자신의 상상력 프로젝트 성과물을 발표했다. 일주일 간의 콘테스트 후 6월 11일 시상식이 열렸고, 최우수상은 유니티(Unity) 게임 엔진으로 제작된 '메타버스 동물원' 팀에게 돌아갔다. 이 프로젝트는 고대 공룡과 현대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상의 섬을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했다. 그 외에도 우수상 2팀과 장려상 3팀이 선정되었다.

시상 내역

최우수상

- **메타버스 동물원** - 고대 공룡과 현대 동물이 공존하는 상상의 섬

우수상

- **마이너스의 손**
 - 고대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손을 차용하여 자본주의 비판 및 대안을 그림책으로 표현
- **Meta to Chance**
 - 취업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스톱 모션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장려상

- **E-Land: 청소해요 전자폐기물의 섬**
 -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 프로젝트
- **더 나은 소리의 세계: AI가 열어주는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
 - AI를 이용한 OTT 콘텐츠 자동 더빙 서비스
- **타임머신 음악소**
 - 노인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1950~1980년대 음악 체험 부스



▲ 성과 공유회 시상식 환영사: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 학장 신영현 교수

• 한성 이마기난스 메타버스

: <https://zep.us/play/yqevxp>

• 한성 이마기난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hsmaginans/playlists>

본 행사는 한성대의 창의융합 교육과 현장 중심 문제해결 교육의 일부를 소개하며, 그 교육적 효과와 함의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상력 교양대학은 상상력을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지적 엄격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헌신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본 성과 공유회에 선정된 작품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자평한다.

〈한성 이마기난스〉 과목은 2024년 1학기에 신규 개설된 교양필수과목으로, 상상력 교양교육의 내용을 다루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 과목은 ‘Encounter(세계와의 만남)’, ‘Challenge(도전)’, ‘Confidence(자신감)’라는 3단계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3 단계에 해당하는 ‘Confidence(자신감)’를 성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축적된 상상력 프로젝트 성과물은 한성 이마기난스 메타버스와 유튜브에 아카이빙된다. 이 프로젝트들은 교과목 콘텐츠로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관리되며, 상호작용적인 개방형 교육 리소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양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체험형 교육과정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



남태우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2학년

저는 2024학년도 1학기 강남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체험형 교육과정 개발 점자 제작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는 사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환경 조성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참여한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는 교내 시설물 입구나 벽면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이 노후화되어 인식하기 어렵거나 현재의 시설명과 맞지 않은 점자 표지판을 조사한 후 바른 점자 안내 표지판을 출력해서 부착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처음에는 교내에서 사회봉사인증시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교내 시설물은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 어느 때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은 있을지라도 불편함 없이 강의실을 이동하고 원하는 강의를 들으며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사소하지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읽어요’
봉사활동 참여자 모임
및 회의



강의실이나 도서관, 행정사무실, 화장실 등 벽면에 어김없이 부착되어 있는 점자 표지판, 노후화되어 뭉개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출입구 좌측 혹은 우측, 가슴높이 또는 눈높이에 부착된 표지판, 시설명이 변경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틀린 표지판 등 이번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무심히 지나쳤을 점자 안내판들이었습니다.

점자 제작 봉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되어 점자 표지판 부착이나 수정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새로운 점자 표지판 제작, 새로이 제작된 점자 표지판의 부착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교내 시설물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을 둘러보면서 훼손되었거나 시설명과 상이한 표지판이 부착된 것은 없는지 현장 사진을 찍어가며 사전 조사를 해보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자 표지판이 생각보다 많았고 수요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시각장애 친구들에게는 이게 눈이고 길이 될 텐데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 점자 표지판 부착 봉사활동





▲ 점자 표지판 부착 봉사활동

“마음으로 읽어요” 점자 제작 봉사를 통해 미흡하나마 점자의 원리를 배우고, 점자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며, 시각장애 친구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불편함도 눈여겨보고 나 스스로 시각장애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도 들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총18명의 시각장애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점자 표지판 그리고 시각장애 친구들이 교내 시설 이용 시 불편했을 요소나 캠퍼스를 오가며 처했을 아찔한 순간, 내가 부착한 점자 표지판이 그 친구들에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봉사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가야 할 것이 무척이나 많은 저에게 단순히 봉사활동에서 오는 뿌듯함 이상의 가치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 친구들의 위험하고 불편함을 감지할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벌사회공헌센터나 장애학생지원센터, 기타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장애인 비장애 친구들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학생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체험형 교육과정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

점자 제작 봉사

"마음으로 읽어요"

교내 노후화 되어 인식하기 어렵거나 현재의 시설명과 맞지 않은 점자 안내 표지판
조사 후 출력하여 부착하는 봉사활동

	체험형 교육과정 교육혁신 [혁신 4.7]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 강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봉사활동장소 강남대학교 교내 건물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휴게실
점자 제작 봉사 VMS 사회봉사시간 인정 비교과마일리지 지급		신청방법 글로벌사회공헌센터 ☎ 031-280-3930 https://forms.gle/VZpcUVPyje3bz1GH7	




학생사례

Student case

대학혁신지원사업 RUS 참여 후기



김찬우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프로그램 소개

건국대학교에서 2019학년도부터 진행 중인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RUS)’은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대학원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 전 연구참여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실 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연구활동을 멘토링 하여 주시는 교수님과 대학원생을 직접 컨택하여 참여하는 구조임에, 본인의 본 전공 연구실 외에도 학업 중 관심이 있던 타 전공으로의 지원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전공 간 경계를 허물고 우수한 연구인재 양성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매월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을 통한 활동장학금 수혜 외 본인이 직접 연구한 연구결과물(논문, 포스터)을 활용하여 국내·외 학회 학생 발표자로서 발표 기회를 제공받고, 관련 학회 참가 여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학회 참여를 통해 ‘17th Asia Network for Quality(ANQ) 아시아 17개국 품질경영 관련 학회 및 표준협회의 연합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2019)’ 및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장려상 수상(2020)’,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우수구두발표상 수상,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2022)’, ‘ICASSP 2023 SPGC Challenge 1위 수상에 따른 IEEE ICASSP 국제학술대회 발표 초청,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한국생태학회 학술발표대회 신안군수상,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논문상 수상(2024)’의 대내·외 실적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생들 중 많은 인원이 본교 대학원 진학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학 부 생 연 구 인 턴 프 로 그 램 (R U S)

대학혁신지원사업
RUS 참여 후기
학생 사례

물투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운 좋게 물투를 관련 연구실에 학부연구생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학교와 연구실의 지원으로 학부생 연구인턴 프로그램(RUS)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정밀공학학회에서 개최한 2024 춘계학술대회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단순히 참여만 한 것이 아닌, “메닉스커스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물투를 슬롯-다이 코팅 시스템의 백업물 형상 이상진단 기법 연구”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도 진행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심사위원분이 다가와서 나의 포스터 발표 평가를 시작할때,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심사위원이 발표를 흥미롭게 들어주셨고, 나도 긴장이 풀리면서 점점 재미를 붙였다. 연구에 대해 의문이 생기신 점들을 질문하셨고, 나는 학부생 수준의 지식 내에서 열심히 답변했다. 그 결과,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정밀공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은 흥미로웠고, 이에 자극을 받았다. 이를 통해 나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학회 참석을 통해 느낀 점은 연구는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학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연구의 방향성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부 연구생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며, 정밀공학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Next Rise 2024: 열정과 혁신의 현장에서 무역인의 꿈을 키우다



하유진

건국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국제무역학과
글로벌 서포터즈

저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와 영어영문학과 복수전공생 하유진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Next Rise 2024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ext Rise 2024 개요 및 참여 동기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주최한 'Next Rise 2024'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 등 2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킹 및 투자 행사입니다.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며 무역결제 수업을 통해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투자마케팅 수업을 통해 무역전시회 준비를 배우며 이론을 넘어 실무 경험을 쌓고자 글로벌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서포터즈로서의 역할 및 성과

Next Rise 2024 글로벌 서포터즈는 영어와 일본어 구사자로 구분되어 기업들의 일정 관리, 통번역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5개의 핀테크 기업을 담당하여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 사항 전달 및 부스 관리 상태 점검, 피칭 기업의 일정 및 위치 안내, 연결 상태 확인, 잠재 투자자와의 1:1 면담 현장 통역, 한국인 방문객 대상 통역 제공 등 폭넓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자기 주도적 혁신 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역전시회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부스 부품 부족이나 일정 중복과 같은 문제를 예측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어진 업무 외에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참가 기업들에게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

참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행사 참여를 위한
자기 주도적 혁신 활동이
제가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우수 대학생 서포터즈 수상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우려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한국 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심 산업군의 타 회사 피칭 일정 정보 제공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커뮤니티연락관 실에서의 인턴십 경험에서, 미국인 직원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대규모 커뮤니티의 생활을 지원하고, 미국 커뮤니티와 한국 당국/기관 간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요청에 응대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이들의 목표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참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행사 참여를 위해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기 주도적 혁신 활동이 제가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 및 인사이트

양일간 진행된 행사는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인 실무자의 소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부스를 방문하며, 저는 무역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혁신지원사업센터 선생님들부터 회사 관계자들과 동료 서포터즈의 따뜻한 배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지원이 아니었다면, 우수 활동자 수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각 부스를 골고루 방문하며 아이스브레이킹을 시도한 결과, 회사 관계자들과 빠르게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이들의 요구사항, 우려, 관심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학생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장점이 되어, 더욱 솔직하고 열린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근함이 양일간의 원활한 활동을 가능케 한 비결이었음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무역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의 매력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회사 관계자들과의 편안한 관계가 마치 마법처럼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을 대하는 회사 관계자들의 태도에서 프로페셔널함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무역인을 꿈꾸는 제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일례로,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핀테크 기업인 틱랭크스 부스에서는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홍보 문구에 대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세일즈 매니저 타카씨는 틱랭크스가 모두에게 더 공평하고 쉽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투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친절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성을 자극하되 감정적이지 않고, 매너있게 대응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올피트의 앙토낭 마홀리에 본부장의 피칭을 도우며, 피칭 시 어떤 자세와 화법이 필요한지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들은 제 안의 무역인으로서의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무자들의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Next Rise 2024는 제게 단순한 행사 참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는 무역인으로서의 저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관계자분들, 동료 서포터즈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때의 열정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주신 주최 측, 건국대학교 혁신지원사업센터, 동료 서포터즈,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실무자들의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 동남아 선도 Proptech 회사 리브인 관계자들과

향후 계획 및 KOTRA에서의 비전

앞으로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중남미개발은행에서 9월부터 6개월간의 인턴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혁신과 금융 포용성 확대 프로젝트를 보조하며 후에 KOTRA에서 국제 무역과 투자 협력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이라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무역인으로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학습서클이 열어가는 가능성의 문



김효은

대구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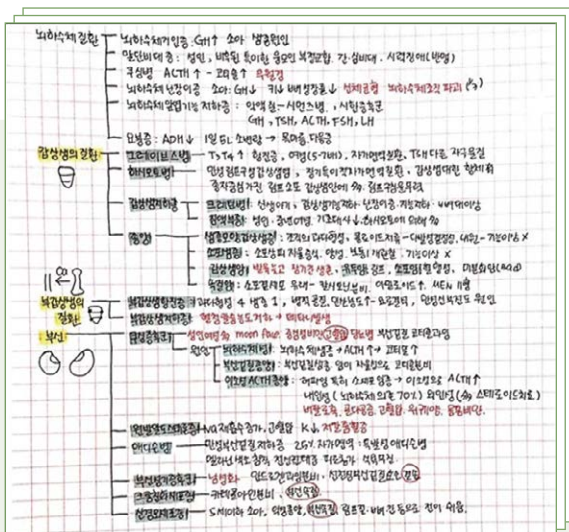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한 “학습서클 Full 과정”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학년 때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알아보고 최대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습서클은 학생들과 하나의 팀을 꾸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주 동안 같이 학습하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전공 공부를 혼자서 하면 재미도 없고 내용이 어려운 반면, 팀원들과 함께하면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전공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정해진 시간에 함께하는 학습을 통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암기에 약해서 암기가 가장 많은 과목을 선정해 팀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소극적이었던 저의 학업적 태도를 극복하고, 리더로서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 학업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계획만 세워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 그날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할 수 있도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저에게 학업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해준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멘토 교수님이셨던 강효찬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 학습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다행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학습서클 팀원들과 함께 학습하는 모습



▲ 학습서를 성과물

이 활동에서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고 각기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지만, 이러한 갈등 덕분에 개인이 단독으로 학습할 때보다 더 깊고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 '병리탐구대'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수업 중 놓친 부분을 보완하며, 암기할 때는 하브루타 공부법, 노트 필기, 각자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 내주기, 백지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원들이 열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하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개선점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주 계획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간단히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기간이 끝난 후에는 점수 및 등수를 확인하여 기존 계획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끝까지 학습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만나는 횟수를 늘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느껴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했던 학습서를 활동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활동 기간 동안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지만 점점 전공에 흥미를 잃어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학습서를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었으며, 전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창의력 쑥~! 스키타고 쑥~! ‘쑥쑥 캠프’에서 배운 창의적 문제해결의 힘



임현정

대구의대학교
K-뷰티비즈니스전공
학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의력 쑥~! 스키타고 쑥~! ‘쑥쑥 캠프’에 참여한 것은 제 대학 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트리즈씽킹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저는 평소 창의적 문제해결과 자기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아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3일 동안 다양한 활동과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이어서 ‘트리즈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트리즈씽킹의 기본 개념을 배우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리즈씽킹은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을 뛰어넘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트리즈씽킹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카공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리는 트리즈씽킹을 도와주는 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발명 원리를 적용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목업도 만들었습니다. 팀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공유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넓히고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동안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트리즈 카드를 활용하여 나만의 문제해결 방법을 만드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트리즈의 다양한 발명 원리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중간에 있었던 스키 활동이었습니다. 스키를 타며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키 활동 후 다시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는 한층 더 활기차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쑥쑥 캠프” 스키체험 캠프 후 단체 사진

마지막 날에는 최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팀의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고, 저희 팀은 2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발표 능력과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즈씽킹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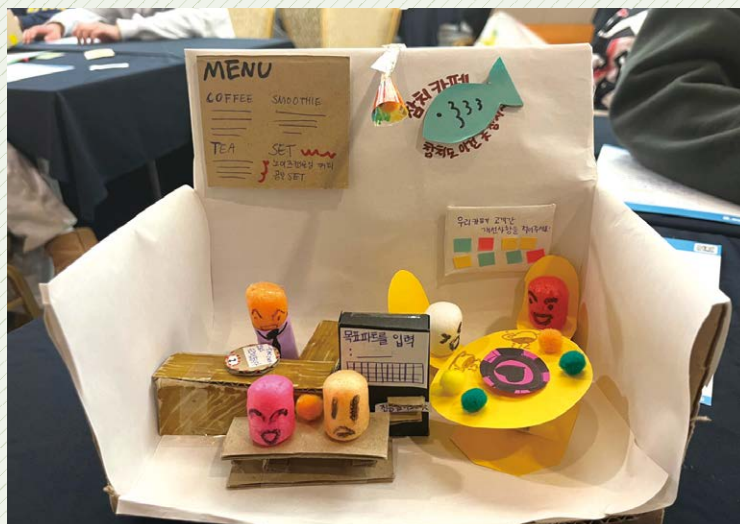
실제 생활에 적용한

팀 프로젝트

‘어떻게하면 카공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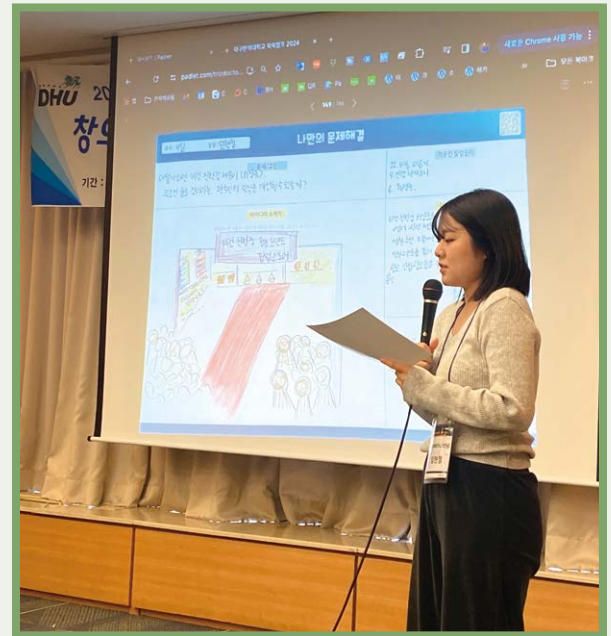
트리즈씽킹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활용한 모кет지 만들기





▲ 2023 쑥쑥 캠프 홍보 카드뉴스

‘쑥쑥 캠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의
학업과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쑥쑥 캠프 최종 발표회

이번 ‘쑥쑥 캠프’를 통해 저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트리즈씽킹을 배우며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익혔고,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것이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쑥쑥 캠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의 학업과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창의적 사고와 팀워크는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을 계속하며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새로운 시각: 혁신드림멘토단과 함께한 여정



장서윤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

저의 소속은 임상병리학과입니다. 나름대로 학업에 충실히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실제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혁신드림멘토단”을 접하게 되었고, 대학 생활에 있어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혁신드림멘토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단 활동을 통해 교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그 가치를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멘토단 활동을 통해 제 전공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간이지만 혁신드림멘토단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한마음 글로벌 체육대회



▲ 한마음 글로벌 체육대회 학교 동아리 “노티스” 축하공연



▲ 한국 전통놀이 “뺑자”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올해 저의 목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혁신드림멘토단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사업팀에서 개최한 『DHU 한마음 글로벌 체육대회』였습니다.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저에게 낯선, 그러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체육대회를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 나눔과 연날리기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있었던 활동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드롭 페인팅을 이용한 심리치료’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저 스스로 창의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홍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미술심리치료학과 교수님과 협력하여, 임상병리학과 학생이라는 한계를 넘어 미술심리치료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드림멘토단 학생위원으로서 제가 얻은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혁신드림멘토단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우리의 대학 생활에 파고든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임진영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
(서포터즈 WINGS 6기)
학생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콜라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소속되어 재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대학 생활에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보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 WINGS에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등을 논의하고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서포터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로그램 정보 및 참여 후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한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있는 것을 SNS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성 및 후기성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중요도에 따라 쏫폼 영상도 제작하여 업로드해 재학생들에게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내 각종 노후 시설물 교체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웹진이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며,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우리 대학 생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처럼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재학생과의 소통의 장, DEU학생 패널 공청회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직접 수혜 대상자인 재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성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24년 5월 2일 동의대학교 창의관 1층 PRIME 세미나실에서 'DEU 학생 패널 공청회'를 진행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안내 및 운영 프로그램 안내와 더불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 WINGS가 재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및 후기 전달 시간을 가졌다.

나는 재학생들에게 추천하며 알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았기에 서포터즈 대표로 프로그램 후기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다. 발표에서 재학생들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소개하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점 등을 포함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추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DEU학생 패널 공청회 발표 사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걸어서 동의속으로 UCC 공모전’을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인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으로 팀을 구성하여 우리 대학을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할 수 있는 UCC를 제작하는 공모전으로 외국인 유학생들과 다양한 분야를 공유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했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협업을 하다보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상을 수상하는 등 영상 제작 실력 향상은 물론 상대방의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많은 재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생한 후기도 전달했다.

이후 학생들이 느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보완점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의견 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으로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 ‘걸어서 동의속으로 UCC 공모전’ 발표 자료

“외국인 유학생들과 협업을 하다보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상 제작 실력 향상은 물론 상대방의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 후기〉

학생사례

Student case

융합전공 이수경험을 말하다 : 내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 뿌리기



장유아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정보과학 융합전공)
재학생

■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유

장차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저는 애초에 법(法)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우면서 경찰에게 있어서 법(法) 지식뿐만 아니라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범죄 분석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동안 관심 있게 읽었던 의학, 범죄심리 분야의 책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 걸까?'라고 되돌아보게 되었고, 장차 경찰이 되어 크고 작은 민원이나 범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법 집행 또는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그 예방이나 동종의 사건 해결을 위한 범죄분석능력도 갖춘 경찰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영산대학교에는 경찰행정학과 이외에 '범죄정보과학 융합전공' 교육과정이 있어 주전공(경찰학) 학위와 함께 범죄학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연했던 저의 목표를 현실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융합전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융합전공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점

주전공 수업 중에도 범죄학 과목이 있어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론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범죄 특성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수중인 범죄정보과학 융합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범죄데이터분석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론이나 방법론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주제와 연구문제를 저희 스스로 선정해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코딩과 분석도 직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담당 교수님들께서 꼼꼼한 설명과 지도를 해주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욱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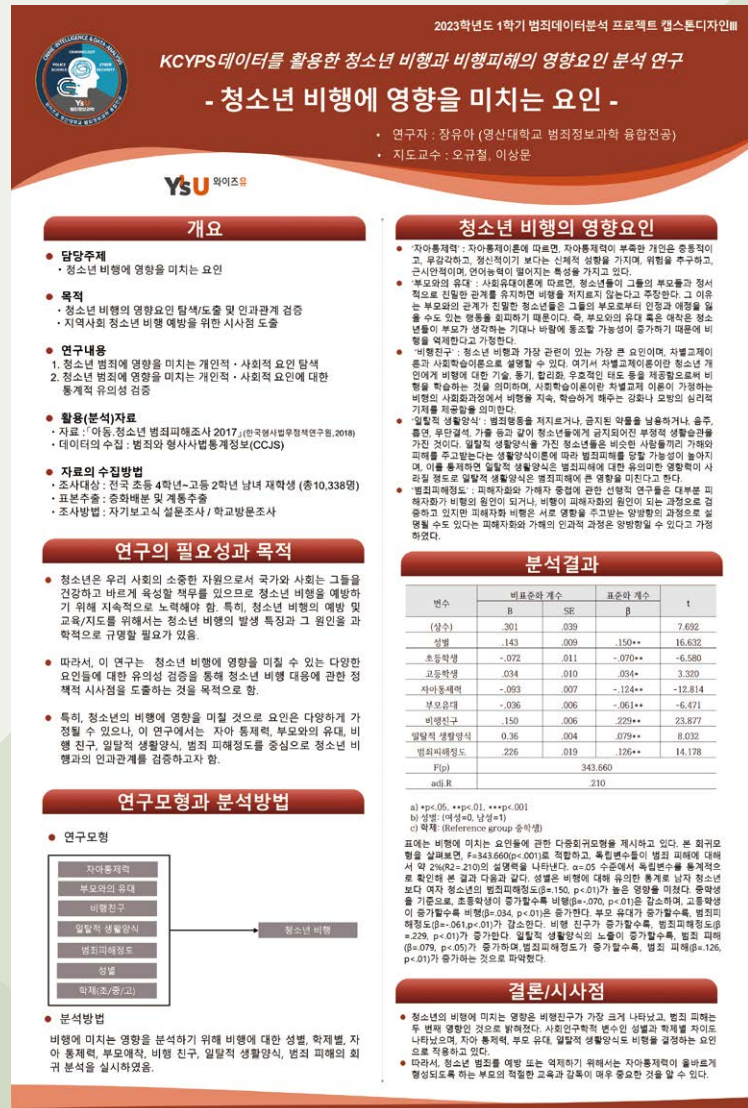
자아통제력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과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KCYPS)를 활용해서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는데,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변수를 선정하여 가설을 수립하였고, 집단 간의 평균 차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및 ANOVA,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그리고 인과관계 및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등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자아통제력·부모애착·비행친구·일탈적 생활양식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아통제력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과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범죄 피해 유형과 다중범죄피해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범죄 피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봐야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갖게 되었습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얻은 성과

범죄정보과학 융합전공에 참여하면서 전공 수업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는데, 2022년 ‘융합전공 UCC 및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우리 융합전공을 소개하는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제작해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에는 경찰청에서 주최한 ‘국제CSI컨퍼런스’ 부대 세미나 중 한국경찰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를 연구포스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학부과정 졸업 전에 정식 연구논문을 발표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갖고 2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과 꾸준히 연구 스터디를 해왔는데, 3학년 때인 작년(2023년)에 ‘한국공안행정학회’라는 학술단체에서 ‘형사사법에서의 정당성 담론과 실무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논문 공모가 있어 지도교수님과 함께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의 관한 국민 인식 연구: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저는 이론적 배경에 포함되는 실정법적 근거의 고찰을 비롯해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을 토대로 데이터 재구성과 통계분석도 지도교수님과 지도를 받아가며 직접 해보았고, 제가 맡은 부분의 보고서 초안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밝히는 것 외에 절차적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소양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기간이 촉박하여 밤낮없이 준비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서투른 점도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논문을 완성했을 때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도교수님과 함께 학술대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전국의 많은 교수님과 연구자분들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논문을 실제 발표하였고, 총 4개의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 중에서 유일한 학부생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 2023년 한국공안행정학회(KCI등재) 학술대회 논문 발표

진로의 방향과 앞으로의 포부

저는 경찰행정학과 학생이지만, 법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고, 범죄정보 융합전공을 통해 범죄학 학사도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범죄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거나 채용시험을 빨리 응시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공 이수를 위한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은 "내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저의 진로 목표인 '경찰'이라는 줄기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치안 전문가로서의 경찰'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WON+페스티벌에서 만난 혁신과 소통 :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고지성

원광대학교
학생

2024학년도 1학기 학교에서 열리는 WON+페스티벌 축제에서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은 혁신지원 사업 목표 및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학혁신사업단과 그에 소속된 INNO 모니터링단이 함께하여, 총 2개의 부스로 구성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행사 부스에서는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캐릭터 ‘혁이’와 ‘신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캐릭터 숨은 그림 찾기과 달고나 깨기, 병뚜껑 날리기,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미션을 구성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점으로 부스가 운영되도록 했고,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며 사업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홍보 부스에서 대학혁신사업단 INNO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행사 부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세로 배너, 미션 안내판,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물을 도출해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 학생들과 소통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알리면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고, 학생들과 대학혁신사업단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로 배너, 미션 안내판,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물을 도출해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 학생들과
 소통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2024 WON+페스티벌 홍보 부스



▲ 대학혁신사업단 카드뉴스



▲ INNO모니터링단 카드뉴스



▲ 세로배너

소통과 혁신을 위한 한 발자국 :

WON+페스티벌 회의



▲ 대학혁신사업단 INNO모니터링단 회의

학생사례

Student case

아이디어를 현실로: BYOI가 만들어준 혁신의 물결



신해수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광고PR브랜딩 전공 재학생

학교 앞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과 재고표를 살펴보다 문득 '재고관리나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자그마한 생각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마케팅 지식을 내가 일하는 가게에 적용해 보면, 가게는 더 효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변의 많은 가게가 전문적인 경영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습득한 경영학, 마케팅 지식과 이론을 책으로만 공부하고 교실 밖에서 실현해보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아쉬움도 갖고 있었다. 불현듯 떠오른 아쉬움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학생들과 그런 지식이 필요한 사장님들을 연결해 줄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던 아이디어를 우리 학교의 'Bring Your Own Ideas(BYOI)' 프로그램이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발판이 되어주었다. BYOI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역량을 개발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BYOI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먼저 운영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초기 계획은 각 가게와 참가팀을 1대1로 매칭시켜 5그룹을 구성하여 서로 경쟁하는 경쟁 체제를 구상했었지만, 그런 방법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다른 참가팀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1개의 가게에 다수의 참가팀을 매칭시켜 서로의 전략에 대해 피드백하고 함께 분석하는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가게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가게를 선정하면서 운영팀은 '공익성'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가게의 매출 등 사익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여러 차례 기부했거나 비영리단체의 인증을 받는 등 사회 환원에 힘쓰는 가게를 선정하여 공익적으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참가팀을 구성하는데 경영학과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로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전략제시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1개의 가게와 5개의 참가팀을 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가게와 참가팀들을 대상으로 운영팀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운영팀은 각 참가팀에게 ‘컨설턴트’의 역할을 부여하며, 가게를 위치, 매출, 상품, 마케팅, 운영 등 참가팀의 능력 안에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가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게를 분석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주었다. 예를 들면 가게의 수익 모델을 분석하여 메뉴의 단일화나 추가를 제안하고, 가게의 검색량을 분석하여 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시하고, 매장의 인테리어나 주변 상권을 고려한 다각도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 제안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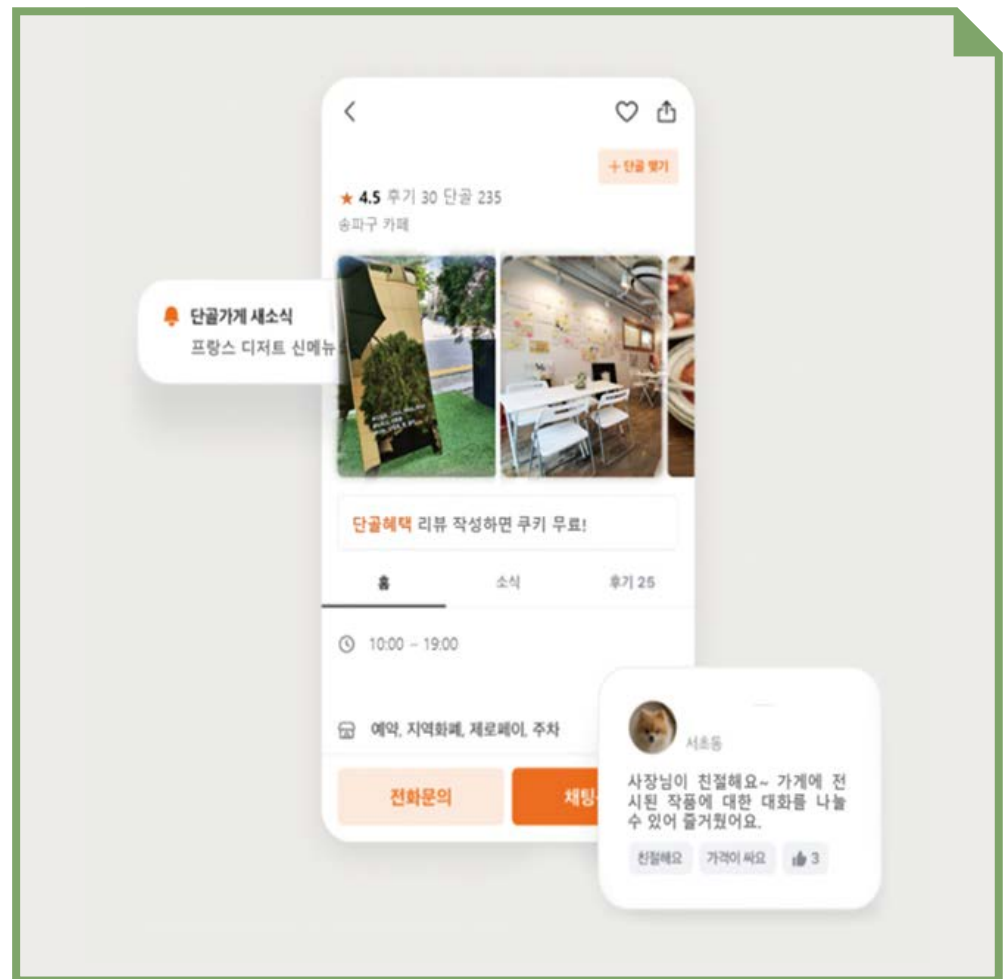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활동 지원금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해주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 오리엔테이션 진행 사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기간 내에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곧바로 가게에 적용했다. 가독성이 떨어졌던 기존의 메뉴판을 직접 디자인하여 다시 제작하거나, 카페의 한 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기 위한 작가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거나, 주요 소비층을 분석하고 광고를 기획하는 등 전략의 기획과 실행까지 해보며 여러 실무적인 활동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각 참가팀은 서로의 전략을 분석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한계나 장점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만 배웠던 지식과 이론들을 직접 실제 가게에 적용해 보고 활동을 해보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당근 광고 작성 예시

아이디어를 현실로:

BYOI가 만들어준

혁신의 물결

Coffee	
아메리카노	3,800
카페라테	4,300
★ 바닐라 빈 라떼	4,300
★ 시나몬 라떼	4,800
카푸치노	4,800
카페모카	5,500
카라멜마끼아또	5,700
디카페인 변경 시 +500원 아메리카노+수제 파베 초콜릿 1조각 세트 4,600	
Non-coffee / Drinks	
★ 수제 생강차	4,800
★ 수제 레몬청/자몽청 에이드	4,800
★ 유기농 녹차라떼	4,800
11곡 라떼	5,500
초코 라떼	4,800
복숭아 아이스티	3,800
TWG 밀크티	5,700
패션프루츠 블루멜로우 에이드	5,700
TWG Tea	
1837 블랙티	5,000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5,000
프렌치 얼그레이	5,000
바닐라 버번	5,000
캐모마일	5,000
크림 카라멜	5,000
Dessert	
★ 수제 사브레 쿠키 오리지널/초코/딸기	1,800
수제 미니 사브레 쿠키 세트 (5개입)	3,600
수제 르방 쿠키 오레오/M&M	3,900
론티로 샌드위치 예그/장지	3,900
파지 뉴델라 브라우니	
1개 / 1판 (6개입)	4,200 / 23,000
마들렌 (3개입)	2,500
수제 파베 초콜릿	1,200 / 7,500
1개 / 5개 선물포장 세트	
★ 진저맨 쿠키	
오리지널 / 귀여운 동식물	800 / 1,100
1세트 (10개입)	7,000
Add	
샷 추가	600
디카페인 샷 추가	800
그린티 샷 추가	600
바닐라 빈 시럽 추가	600
시나몬 시럽 추가	600

전 메뉴 텀블러로 테이크아웃 시 300원 할인됩니다.

▲ 직접 제작한 메뉴판

이렇게 BYOI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발판이 되어주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활동 지원금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해주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아이디어를 성패와 상관없이 마음껏 실행해 볼 이런 멋진 기회가 학교 학생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점은 정말 큰 행운이다. 이 BYOI 활동 최종 보고와 함께 우리 팀은 '대상'이라는 1등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모든 일에 있어 위대한 시작은 없다, 단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여 위대한 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작은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BYOI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펼칠 멋진 기회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GEM 프로젝트: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다



전은지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

GEM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프로그램 이름	GEM (Global Engagement Mobilization)
목적	전공지식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
참가자 구성	7명의 학생
지원 내역	학교 및 외부 후원자 지원
비용 사용처	항공료, 숙박비, 현지 활동비 등
준비 및 활동 기간	준비기간 3개월, 여름방학 동안 2주 프로그램 진행
프로젝트 분야	교육
협력 기관	교육기관

프로그램 소개



▲ GEM 소개 포스터

한동대학교의 GEM(Global Engagement Mobilization)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총 6개 팀이 선발되었으며 한키즈 팀은 글로벌한국어교육학 전공생 7명이 모여 키르기스스탄의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제로 10일간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 한키즈 in 케인 univ.							
시간 Time	대상 For	5/20 목. Tue	5/21 수. Wed	5/22 목. Thur	5/23 금. Fri	5/24 토. Sat	
10:00~10:10	환영 말	수업 소개 Introduction					
10:10~10:30	점심 식사	한국어 회화 실용 1	한국어 회화 실용 2	한국어 회화 실용 3	한국어 회화 실용 4	비전공 학생 Facult Refresher	
	비전공생	배기태선생 한국-문화어	한국 언어의 한국-문화어	Do you know 문화어?	문화어 필요		
10:30~12:30	점심 식사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특별한 연수 Facult Refresher	
	비전공생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한국 조공정 연습자		
12:30~14:00	점심 식사	점심 시간 Lunch Time					
14:00~17:00	점심 식사	한국어 회화 실용 1	한국어 회화 실용 2	한국어 회화 실용 3	한국어 회화 실용 4	공연	

▲ 활동 계획

한키즈 팀의 GEM 프로그램 참여 소감

저희 한키즈 팀은 이번 GEM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학습 목표를 가진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현지 대학 관계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필요와 흥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파견으로 현지 대학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수와 학습자 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며, 고정된 교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동향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결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생들도 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 차이와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실용적인 한국어를 연습하며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한글을 배우며, 학부모님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 활동 완료



▲ 언어 수업 (이름 쓰기, 한글 초콜릿 만들기)

한계와 대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 과정과 현실의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언어적 한계와 환경적 변수, 지속적인 학생 수 변동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지 학생들은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느긋한 문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웠으며, 일부 학생들이 시간표에 맞추어 참여하지 못해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언어 수업 (캘리그래피, 윷놀이, 오징어 게임)



▲ 문화 수업 (부채춤, 태권도, 연극, 동요)

결론과 향후 방향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의 높은 흥미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현지 한국어 교육 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한동대학교와 케인대학교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하여 현지 전공생들에게는 회화 연습 파트너를 제공하고, 타 학부생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한국어교육학 전공생들에게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수업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EM 해외전공봉사에 대한 내용은 언론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431#home>

행사소식

News of event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사전교육 및 발대식” 개최



최병민

강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원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및 경력개발 강화를 위해 매 학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직무체험은 일 경험, 현장실습 및 대학교육 현장 밖에서 체험하는 전공 역량 등 전공과 관련한 진로·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참여자 선발을 위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실버산업학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49명의 신청자 가운데 서류심사와 최종 면접을 통해 직무체험 참가자 23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6월 21일(금) 강남대학교 인문사회관 1층 학생성공센터에서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사전교육 및 발대식”을 가졌다.



▲ 2024.06.21.(금)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사전교육



▲ 2024.06.21.(금)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발대식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직무체험 교육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홍승연교수 지도하에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관별 4주간 진행되며 ㈜바이엘, 강동구치매안심센터 등 12개의 실버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에서 총 23명의 학생이 직무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직무체험 참가학생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연금설계, 반려로봇, 실버용품 온라인 쇼핑몰, 요양산업, 교육산업 등 다양한 실버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키우며 미래 진로 탐색 및 설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실버산업학과와 명칭을 변경한 시니어 비즈니스학과를 두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버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이해를 통해 다양한 실버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2024.06.04.~06.06 서울 코엑스 제4회 Reha Homecare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실버산업학과 홍보 부스



2024학년도 하계 직무체험 사전교육 및 발대식



▲ 2024.06.04.~06.06 서울 코엑스 제4회 Reha Homecare
(홀케어·재활·복지 전시회) 실버산업학과 홍보 부스

행사소식

News of event

호원대학교 인권의식 증진 홍보캠페인



김민지

호원대학교
인권센터
계약직(팀원)



개요

- 대학 내 인권의식 증진 홍보를 통한 재학생들의 인권 보호 의식 향상
-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점검
-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 참여를 통하여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 전달

캠페인 일정

- 2024. 05. 21.(화) 13:00~17:00

캠페인 장소

- 2024학년도 호원대학교 축제 내 인권센터 홍보 부스



▲ 활동 사진

■ 캠페인 주요 내용

▶ 차별과 폭력 없는 호원대학교 캠퍼스 만들기(아래와 같은 차별과 폭력 근절 캠페인)

- ① 직접차별: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의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고,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② 간접차별: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낳고, 또한 그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 ③ 괴롭힘: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의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모욕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등의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하거나 선동 등의 혐오 표현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호원대학교 인권의식 증진 홍보캠페인

▶ 홍보캠페인 부스 운영을 통해 교내 인권 증진 캠페인 진행

▶ 군산성폭력상담소와 합동으로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 진행

- ① **인권침해 발언 포스트잇 붙이기**: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차별과 인권침해의 발언을 포스트잇에 적어 하드보드지에 붙여 전시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인권침해 발언 공유 활동은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② **인권침해 활쏘기**: 과녁에는 다양한 인권침해 발언의 종류가 있고, 이 중 자신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인권침해 발언을 향해 활을 쏘는 활동. 어떤 발언들이 자신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다가왔는지 스스로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③ **인권침해 발언에 아이스크림 펀치볼 날리기**: 인권침해 발언들이 적혀있는 볼링핀을 향해 펀치볼을 날려 쓰러뜨리는 활동. 자신이 경험했던 인권침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외면받지 않고 있다는 지지 의식을 느낄 수 있음.
- ④ **인권 보호 스티커 붙이기**: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이 적혀있는 판넬에서 자신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인권침해 유형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 어떠한 발언과 행동들이 타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활동 사진



▲ 활동 사진

향후 계획

-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나 폭력(성희롱·성폭력 포함)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 구성원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유관기관의 협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인권침해 및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및 공유
- 대학 내 지속적인 인권 증진 홍보 강화로 구성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 개회사_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송창수 회장



▲ 축사_ 한국연구재단 문선영 대학교육실장

기조
강연



▲ 기조강연_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초청
특강



▲ 초청특강_ 이태희 한양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전략기획팀 부장





▲ 등록 데스크 운영

권역별 분임토의



▲ 권역별 분임토의1_수도권



▲ 권역별 분임토의2_대구·경북·강원권



▲ 권역별 분임토의3_충청권



▲ 권역별 분임토의4_호남권



▲ 권역별 분임토의5_부산·울산·경남권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1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1호(10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 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COVID-19 환경 하의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 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 고 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아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원고응모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117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원고분량	▶ A4 최대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 제출기한 : 2024. 09. 1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pusan.ac.kr) -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 문 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051)510-7905/7949

